

현안과제연구

충남 농어촌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진단

연구수행 : 조영재

CDI 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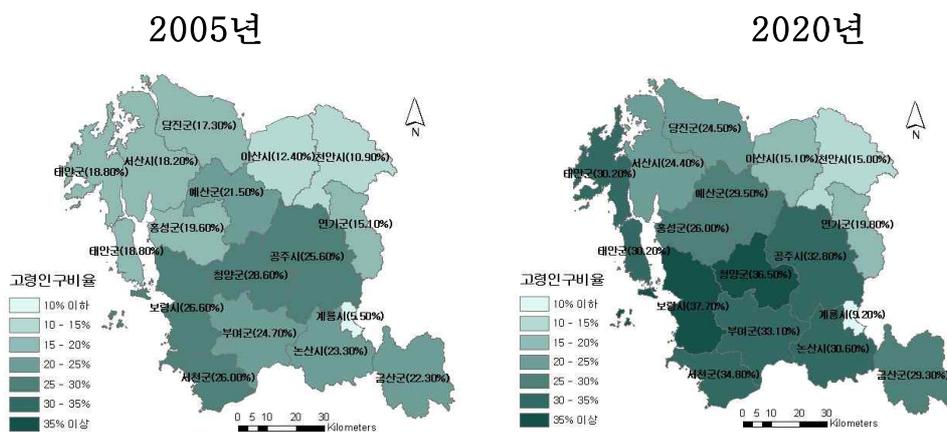
충남 농어촌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진단

1. 지역현황 및 특성

1.1. 농어촌 · 농어업인구 현황

□ 충청남도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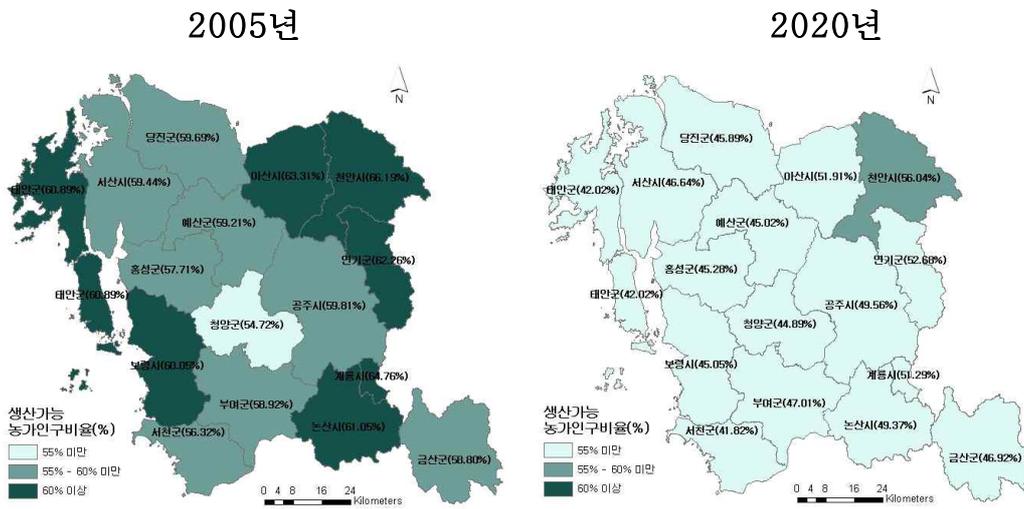
- 충청남도의 농어촌(읍·면부) 인구는 2002년 1,289천명에서 2007년 1,276천명으로 연평균 -0.2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45명~1,224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촌 인구 비중 : ('02) 67.2% → ('07) 63.0% → ('20) 52.2~61.1%
- 충청남도 농어촌(읍·면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18.7%에서 2020년 2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부양연령층 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 연령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2005년 28.8에서 2020년 3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충남 시·군별 농어촌인구 고령인구 비율(2005, 2020)

□ 충청남도 농어가 인구의 감소 및 다문화·귀농인구의 증가 추세

-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05%씩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고령인구는 연평균 2.96%씩 증가하고 있어, 농가인구 총부양비가 급증하고 있음.
- 농가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39.5%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도 1995년 69.25%에서 2005년 60.24%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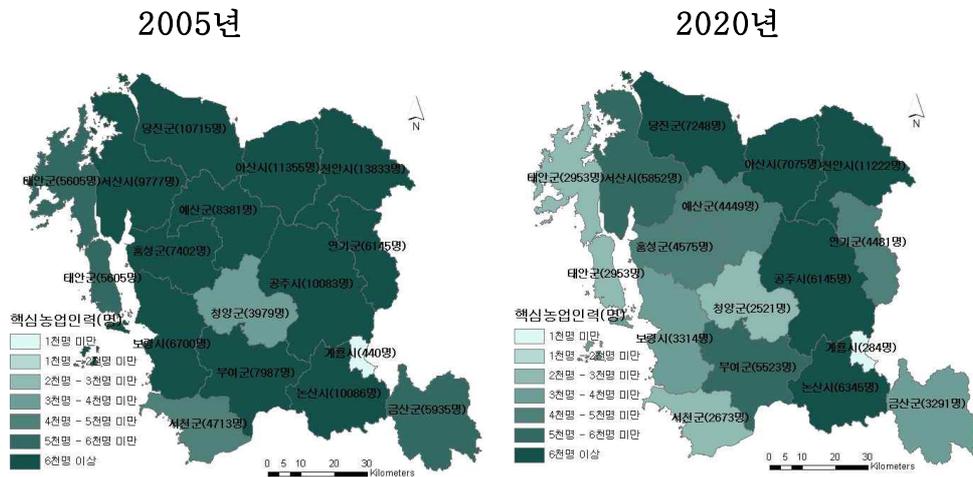


<그림 2> 충남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전망(2005, 2020)

- 충남의 어가인구는 2000년 27,575명에서 2007년 26,943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0.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가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00년 이후 연평균 -1.7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귀농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충남지역도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이후 귀농인구는 연평균 201.3세대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3배가 늘어남.
- 2007년 현재 충남의 다문화가정은 총 5,321가구로 전국대비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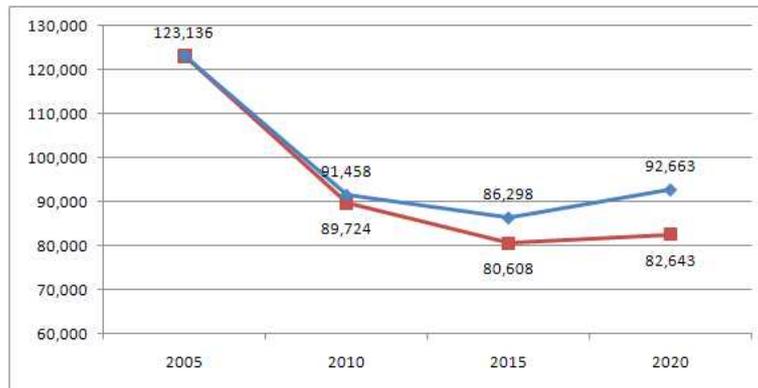
□ 적절한 정책대응이 있을 경우 농어업인력의 감소율이 둔화될 전망

- 향후 이농률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충청남도의 농가인구는 2005년 446,022명에서 2020년 327,058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2.05%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 중 핵심농업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49세는 2005년 123,136명에서 2020년 77,949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3.00%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충남 시·군별 핵심농업인력 변화 전망(2005, 2020)

- 이주여성농업인과 귀농인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20년의 핵심농업인력은 82,643명(이주여성농업인 3,878명, 귀농인구 81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귀농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을 농어업인력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핵심농업인력은 2020년의 전망인구 77,949명보다 14,714명이 많은 92,663명 수준으로 전망됨.
- 즉, 결혼이주여성을 적극적으로 농업인력으로 활용하고, 도시민 중 귀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2020년 핵심농업인력은 82,643명~92,663명 수준으로 감소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충남 핵심농업인력 변화전망(적절한 정책대응이 있을 경우)

1.2. 보건 · 복지 · 교육 현황

□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시설('09.12. 기준)

- 충남의 병 · 의원수는 1,942개소로 전국평균 3,208개소 60.5%에 불과
- 인구 만명당 병상수는 100.7개로 전국 10위의 수준임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보건 · 복지시설('09.12. 기준)

- 도시화가 진행된 천안 · 아산시 이외의 지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5.0%가 거주
- 사회복지관의 41.0%가 천안시 · 아산시 2곳에 위치
- 응급의료기관이 16개 시 · 군 가운데 4개 시 · 군에만 개소됨
- 7개 시에 충남 종합병원의 81.8%, 의료인력의 75.3%, 병상수의 71.1%가 집중되어 있음

□ 수요에 미흡한 복지시설('09.12월 기준)

-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동화되는 농어촌에는 민간 중심으로 설치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의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충남에는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 167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5,570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50개소가 운영중임
- 충남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2.3%로 전국 3위로 비율이 점증하고 있지만(2009년 7월 기준), 주민과 차별없는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함.

□ 현재의 사회안전망제도 운영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농어촌주민의 생활보장제도개선이 요구됨**

- 도시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에 의해 일정 수준 보호받고 있으나 농어업인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질병·재해예방이 미흡

- 충남의 공중보건 의사 159명 가운데 전문의 비율은 34.5%에 불과하여 의료의 질이 낮음
- 보건지소 313개소가 있으나, 9개 군의 관할인구비율(관할인구수/관할리동수)이 20.3%로 높아 질병·재해예방이 어려움
-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장비가 낙후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하여 농어촌의 보건의료가 취약함
- 2008년부터 82종의 법정전염병, 성병 및 에이즈, 한센병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예방이 어려움
- 고령화·부녀화, 농작업 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과 유해작업 환경 증가로 농림어업인의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

□ 의료·복지기관간 연계체계가 미흡

- 농어촌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중복되어 설치된 기관**이 있는 반면, 적은 수요의 의료·복지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열악한 교육기반으로 농어촌의 공동화가 심화됨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발생
- 도시로 상급학교를 진학하여 농어촌의 젊은 인구층이 감소
- 평생교육기반·프로그램이 열악하여 농어민의 발전역량 확충이 미흡

1.3. 기초생활, 환경·경관 현황

□ 농어촌의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

- 도로 포장율('09)
 - 농어촌도로 48.4%, 시·군도 72.0%, 지방도 79.4%
- 상수도 보급률('08)
 - 일반상수도: 면 54.9%, 읍 86.5%, 도시 95.9%
 - 광역상수도: 면 36.0%, 읍 82.8%, 도시 95.7%
- 하수도 보급률('08)
 - 군지역 46.8%, 시지역 69.4%(전국 평균 88.6%, 도 평균 75.6%)

□ 종합성·체계성이 결여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

- 농촌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지원이 미흡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 건설되거나 질적 수준이 낮음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일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주택 신축과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정비가 연계되지 않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낮음
- 개별 주택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어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가능하나 마을 단위의 환경·경관·어메니티 향상에 한계
-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기준이나 최적 공급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져 효율성이 저하됨

□ 농어촌 정주공간의 다양한 분화와 차별적인 정책대응 필요

- 도시 및 농촌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는 소규모 자연마을 중 상당수가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더라도 정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될 것임
- 충남북부지역과 대전광역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 마을의 도농혼주화가 심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단지, 그린투어리즘마을, 은퇴자마을, 동호인마을, 전업화된 농업인마을 등 다양한 성격의 마을들이 더욱 증가할 것임
- 마을내 공동시설의 기능이 재편될 것임. 다시 말해서 마을회관이 담당하던 기능을 읍면소재지의 문화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이 흡수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 갖는 공동생활공간

으로서의 기능(공동취식, 숙박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린투어리즘 마을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숙박접객 등의 새로운 기능이 부여될 것임

□ 농어촌 생활 및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부하 증가에 비해 처리능력과 환경개선 활동은 미흡

- 하천변, 항구 등에 폐비닐, 농약병,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 가축분뇨 등 농어촌 바이오매스의 자원화·에너지화 및 지열, 태양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활용 미흡

□ 농촌다운 자연환경과 전원경관 등 유·무형 자원(amenities)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활용 미흡

- 도시(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관광지 난립이 진행되면서 경관 훼손이 심각함
- 충청남도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심의(자문)이 이루어져서 농어촌 경관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코자 하는 노력이 부족함. 또한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농어촌경관의 개선을 위한 시책들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농어촌의 불량경관, 우수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경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시책마련 및 추진이 요구됨
- 주민참여 속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어메니티를 스스로 보전하려는 노력 촉진 필요

1.4. 농산업, 문화·여가 현황

□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연계성 취약

- 향토산업, 특화품목사업 등을 통해 개별 시군별로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대표적 충남지역의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향토산업의 차별화된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특히 향토산업육성과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이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음.

<표 1> 향토산업 육성 현황 및 지원금액

구분	품목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금산군	고품질 인삼	1000	500	100	100	300	
부여군	갯뜨래 밤	1120	500	250	250	120	
서천군	한산 소곡주	1322	661	193	193	275	
청양군	구기자	1398	500	230	230	438	
당진군	약쭈	987	436	215	221	115	

<표 2> 주요 향토산업별 참여기업체 및 매출액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참여기업명	농기업 매출액		비고
		'08년실적	'09년실적	
금산군	고려홍삼, 금산대근홍삼 등 29개업체	17,971	53,843	
부여군	밤뜨래 영농법인, 부여밤영농법인	-	4591	
서천군	한산소곡주	1800	2045	
청양군	구기자 조합	1500	2208	

자료 : '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의 활성화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와 농촌자원의 중요성 인식으로 다양한 도농교류와 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와 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현재 운영중인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기반의 실태 파악 및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충남도가 갖고 있는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기반을 활용한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표 3> 농어촌체험·휴양 기반 구축 실태

(단위 : 개소(누계), 백만원)

구 분	녹색 농촌	산촌 생태	어촌 체험	전통 테마	친환경 농업체험	관광 농원	농어촌 민박	비고
2006년말기준	31	18	7	19	0	66	1,167	
2007년말기준	45	24	7	33	4	67	1,229	
2008년말기준	58	29	7	39	6	67	1,372	
2009년말기준	71	32	8	39	8	74	1,393	

<표 4> 도농교류 관광객 수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방문객					매출액						비고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타	계	숙박	음식	농특 산물 판매	체험 운영	기타	
		당일	숙박									
2006	177	106	18	44	8	2731	278	388	1457	579	27	
2007	198	122	26	25	24	2912	226	411	1519	708	47	
2008	245	169	29	29	17	4637	321	520	2887	887	19	
2009	278	183	49	29	15	5168	407	656	3158	914	31	

주: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객 수 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경제기반 취약으로 일자리 창출 부족 및 지역경제의 거점인 전통시장의 미활성화
 - 농촌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1차-2차-3차의 연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서 개별 산업부문의 유기적 연계성이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농촌지역경제의 개별 산업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현재 충남지역에는 총 75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표 5> 전통시장 운영현황

구 분	시 장 수						점포수	종사수	비고
	등록 여부			개 설 주 기					
	계	등록 인정	무등록	계	상설	정기			
2006.12월말기준	79	58	21	79	36	43	8,377	13,536	
2007.12월말기준	79	42	12	79	34	45	9,284	13,732	
2008.12월말기준	75	59	16	75	32	43	9,297	14,074	
2009.12월말기준	75	62	13	75	34	41	9,693	16,273	

- 농촌지역 삶의 질 분야 중 문화·여가분야의 낮은 만족도 수준
 - 주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여가분야의 만족도가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농촌지역에 문화·여가기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농촌지역 문화·여가기반의 절대 부족 및 문화·여가프로그램의 미흡
 - 충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의 문화·여가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현재 충남도의 공공도서관은 23개, 공립박물관은 9개, 공연장은 31개소 등이 공급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이들 문화·여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역시 취약한 실정임.

- 지역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미흡 및 차별화·특성화된 지역고유문화의 부족
 -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문화, 예컨대 내포문화, 백제문화, 금강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아울러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문화를 이용한 지역발전전략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미약한 실정임.

1.5. 지역발전역량·정책추진체계 현황

- 중앙정부 부처 사안별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농산어촌 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
 -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성과목표를 H/W 중심의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움.

- 충남의 경우 농촌지역 인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리더십육성과정 참가율 전국대비 상대적 저조
 - 인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가율(06~08년) : 충남 9.7%, 경북 15.7%, 전북 13.7%
 - 농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과정 참가율(05~08년) : 충남 2.4%

□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통합추진 되지 못하는 농촌개발정책

-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개발의 총괄조정 및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팀에서 농정총괄을 담당하나, 실제 하는 일은 각과에서 올리는 예산이나 사업을 주로 취합하는 일에 머물고 있으며 농촌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농촌개발과는 기획기능이 없이 단지 국비예산에 기초한 일부 농촌지역개발 관련 행정만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기타 농촌개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 지방정부의 농촌개발은 대부분 중앙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추진으로 자율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농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충청남도의 농촌개발사업은 농림수산국의 농업정책과와 농촌개발과를 포함하여,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의새마을과, 관광산업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 농업이나 농산업, 보건·복지, 문화·예술부문은 업무의 고유성을 가지고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관광이나 농촌교육, 농촌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몇몇 부서간에 유사·중복성을 보임.
 -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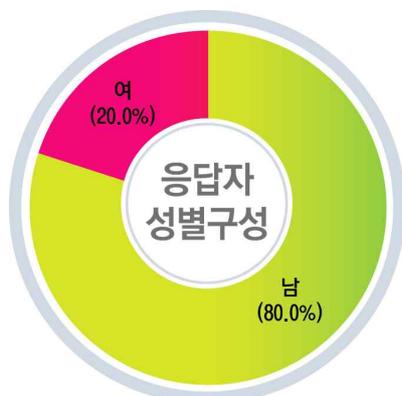
2.1. 개요

□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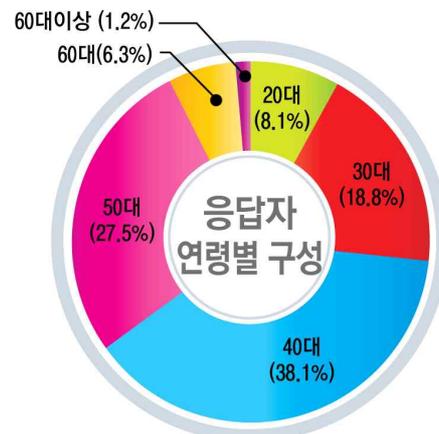
- 본 조사는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정책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적합한 장·단기적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민의식 조사는 기존 관주도의 하향식(Top-to-Bottom)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Bottom-to-Top)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임

□ 조사방법 및 내용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작성한 설문지를 무작위로 추출된 시·군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기간: 2010년 3월 10일~2010년 3월 19일(11간)
- 2010년 4월 현재 160부가 회수되어 분석하였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80.0%), 여자(20.0%)이었음
 - 연령별로는 20대(8.1%), 30대(18.8%), 40대(38.1%), 50대(27.5%), 60대(6.3%), 60대 이상(1.2%)임



<그림 5> 응답자 성별구성



<그림 6> 응답자 연령별구성

□ 조사결과 종합

<표 6> 주민의식조사 결과종합

구 분		응 답 결 과	
농림어업인	현재 삶의 질 만족도	① 매우만족(3.8%), ② 만족(10.6%), ③ 보통(57.5%), ④ 불만족(25.0%), ⑤ 매우불만족(3.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① 매우좋아짐(6.3%), ② 약간좋아짐(33.8%), ③ 마찬가지로(35.6%), ④ 약간나빠짐(15.0%), ⑤ 매우나빠짐(9.4%)	
	5년 후 삶의 질 전망	① 현재보다 좋아질 것임(31.9%), ② 현재와 마찬가지로(41.9%), ③ 현재보다 악화될 것임(26.2%)	
삶의 질에 대한 기본실태	부문별 만족도	보건·복지증진	① 매우만족(1.3%), ② 만족(25.6%), ③ 보통(50.6%), ④ 불만족(21.9%), ⑤ 매우불만족(0.6%)
		교육여건개선	① 매우만족(0.0%), ② 만족(14.4%), ③ 보통(37.5%), ④ 불만족(41.9%), ⑤ 매우불만족(6.2%)
		기초생활인프라	① 매우만족(1.9%), ② 만족(13.1%), ③ 보통(47.5%), ④ 불만족(30.6%), ⑤ 매우불만족(6.9%)
		경제활동다각화	① 매우만족(1.9%), ② 만족(7.4%), ③ 보통(51.9%), ④ 불만족(33.8%), ⑤ 매우불만족(5.0%)
		문화여가 여건개선	① 매우만족(1.9%), ② 만족(9.4%), ③ 보통(36.2%), ④ 불만족(40.6%), ⑤ 매우불만족(11.9%)
		환경·경관개선	① 매우만족(3.1%), ② 만족(31.9%), ③ 보통(41.9%), ④ 불만족(21.3%), ⑤ 매우불만족(1.8%)
		지역역량강화	① 매우만족(3.8%), ② 만족(16.2%), ③ 보통(50.0%), ④ 불만족(23.8%), ⑤ 매우불만족(6.2%)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보건복지증진(19.4%), ② 교육여건 개선(21.6%), ③ 기초생활인프라 확충(14.1%), ④ 경제활동다각화(15.3%), ⑤ 문화여가 여건향상(11.9%), ⑥ 환경경관 개선 (5.3%), ⑦ 지역발전 역량강화(12.2%), ⑧ 기타(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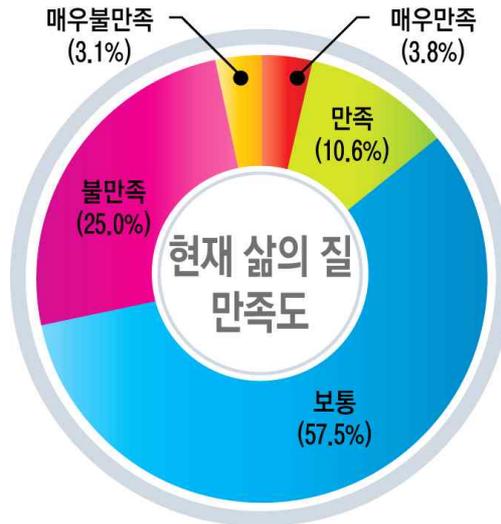
< 표 7 > 주민의식조사 결과종합(계속)

구 분		응답 결과
보건 복지 증진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① 매우필요(60.0%) ② 조금필요(26.3%) ③ 보통(12.5%) ④ 필요치않음(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① 매우필요(61.3%) ② 조금필요(26.9%) ③ 보통(11.2%) ④ 필요치않음(0.6%)
	농어촌 취약계층 복 지지원	① 매우필요(44.4%) ② 조금필요(33.8%) ③ 보통(21.2%) ④ 필요치않음(0.6%)
	농어촌 능동적 복지 기반 강화	① 매우필요(34.4%) ② 조금필요(45.0%) ③ 보통(19.4%) ④ 필요치않음(1.2%)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특성 반영 학 교 육성	① 매우필요(41.9%) ② 조금필요(36.2%) ③ 보통(17.5%) ④ 필요치않음(3.4%)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① 매우필요(46.2%) ② 조금필요(31.3%) ③ 보통(22.5%)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교육기회 제공	① 매우필요(54.4%) ② 조금필요(28.8%) ③ 보통(15.0%) ④ 필요치않음(1.8%)
기초 생활 인프라	지역주도 개발체계 정착지원	① 매우필요(29.4%) ② 조금필요(43.8%) ③ 보통(25.0%) ④ 필요치않음(1.8%)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① 매우필요(25.0%) ② 조금필요(41.3%) ③ 보통(30.0%) ④ 필요치않음(3.7%)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매우필요(46.3%) ② 조금필요(41.3%) ③ 보통(11.9%) ④ 필요치않음(0.5%)
경제 활동 다각 화	농어촌산업 고도화	① 매우필요(42.5%) ② 조금필요(37.5%) ③ 보통(17.5%) ④ 필요치않음(1.9%) ⑤ 전혀필요치않음(0.6%)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① 매우필요(39.4%) ② 조금필요(38.8%) ③ 보통(19.4%) ④ 필요치않음(1.9%) ⑤ 전혀필요치않음(0.5%)
문화 여가 여건 개선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확충	① 매우필요(40.7%) ② 조금필요(41.3%) ③ 보통(16.9%) ④ 필요치않음(1.3%)
	농어촌 주민 문화향 유 지원	① 매우필요(31.8%) ② 조금필요(46.3%) ③ 보통(20.6%) ④ 필요치않음(1.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① 매우필요(30.6%) ② 조금필요(38.1%) ③ 보통(27.5%) ④ 필요치않음(3.1%) ⑤ 전혀필요치않음(0.7%)
환경 경관 개선	농어촌어메니티 체계 적관리활용	① 매우필요(21.3%) ② 조금필요(41.3%) ③ 보통(31.8%) ④ 필요치않음(5.5%)
	농어촌 환경오염 방 지	① 매우필요(40.6%) ② 조금필요(35.0%) ③ 보통(21.9%) ④ 필요치않음(1.8%) ⑤ 전혀필요치않음(0.7%)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① 매우필요(31.9%) ② 조금필요(31.9%) ③ 보통(31.3%) ④ 필요치않음(3.1%) ⑤ 전혀필요치않음(1.8%)
지역 역량 강화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① 매우필요(46.3%) ② 조금필요(35.6%) ③ 보통(16.9%) ④ 필요치않음(1.2%)
	지역발전 컨설팅 강 화	① 매우필요(32.5%) ② 조금필요(38.1%) ③ 보통(23.1%) ④ 필요치않음(5.6%) ⑤ 전혀필요치않음(0.7%)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① 매우필요(38.1%) ② 조금필요(36.9%) ③ 보통(20.6%) ④ 필요치않음(4.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강화	① 매우필요(31.9%) ② 조금필요(35.0%) ③ 보통(27.5%) ④ 필요치않음(5.0%) ⑤ 전혀필요치않음(0.6%)

2.2 세부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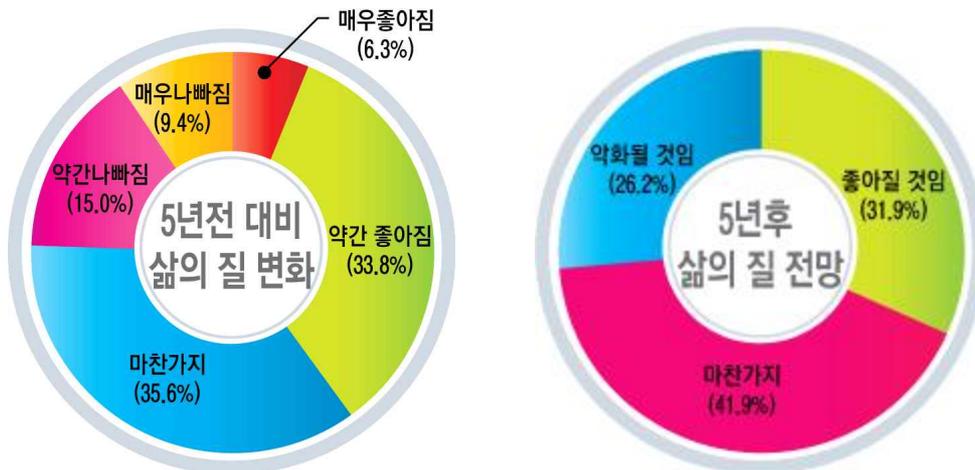
□ 농림어업인 삶의 질에 대한 기본실태

- 전반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는 낮게 평가됨
 - 매우만족(3.8%), 만족(10.6%), 보통(57.5%), 불만족(25.0%), 매우불만족(3.1%)



<그림 7> 농림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 5년 전에 비해 현재 농림어업인 삶의 질은 40.1%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보통 35.6%, 나빠짐 24.4%로 나타남
- 현재에 비해 5년 후 농림어업인 삶의 질은 41.9%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예상하였으며, 좋아질 것임 31.9%, 악화될 것임 2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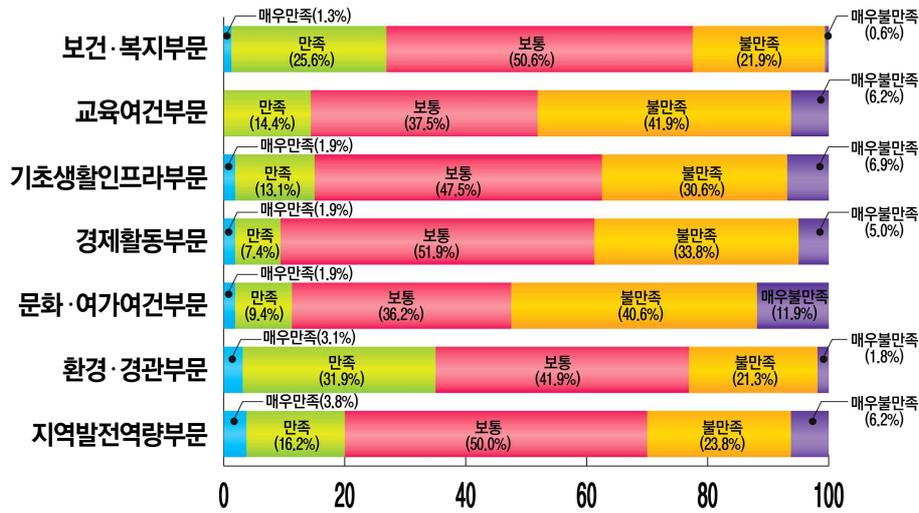


<그림 8> 5년 전에 비해 삶의 질 변화

<그림 9> 5년 후 삶의 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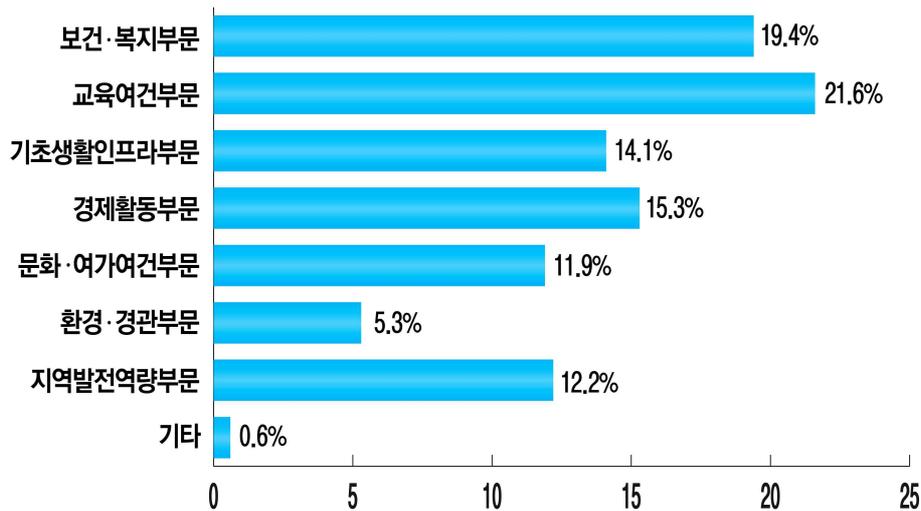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여건, 기초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문화·여가 여건, 환경·경관, 지역발전 역량 부문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환경·경관부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여가 여건과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됨



<그림 1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부문별 만족도

- 7개 부문 중 교육여건 개선이 향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향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이 22%, 보건·복지증진 19%, 경제활동 다각화 15%로 평가됨



<그림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교육기회 제공,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산업 고도화, 생활친화형 문

화·여가 인프라확충,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증진 부문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부문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교육기회 제공, 기초생활인프라 부문은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경제활동다각화 부문은 농어촌산업 고도화, 문화·여가여건개선 부문은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확충, 환경·경관개선 부문은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지역역량강화 부문은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됨



<그림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별 필요 사업

- 그 외에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표 2>와 같은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됨

<표 8> 부문별 기타의견

부 문	주요내용
보건·복지증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경감혜택 지원 ○ 병원 및 의료시설 확대필요 ○ 의료보험전액지원, 전문병원 등
교육여건개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교육정책 필요 ○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필요 ○ 교육정책강화 ○ 우수한 학교 설립 필요 ○ 대학교 교육비 지원 ○ 농업인자녀 보육료지원확대 등
기초생활인프라 부문	-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품목별 편중 과잉 생산을 억제하면서 친환경 농법 ○ 농어업으로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농산물 판매가격 적정화 필요 ○ 쌀값안정화, 농자재값 안정화 필요 ○ 도시지역과 자매결연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및 자연친화적인 농어촌 가꾸기
문화여가 여건개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공연문화 필요 ○ 문화시설유치 ○ 농어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농어촌 공동체 의식 강화
환경·경관개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방지책 시급 ○ 환경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지역역량강화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농축산 관련 교육과 도전의식 고취가 필요 ○ 농어민 의견수렴 경제적 지원 지속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일관성 필요 ○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사업 지속지원 건의 ○ 농촌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필요

3. 상위·관련계획 검토

관련계획	주요계획내용	비 고
제4차 국토종합 계획수정계획 충청남도계획 부문계획 (200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개발 ○ 전국 제일의 선진 농수축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다각화 ○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 자연산업 육성과 산학 협력 및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 ○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와 관광벨트 육성 ○ 지역특산물을 국제적인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개발, 농촌경제 다각화 전략 수용
제3차 충청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형 사계절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약초시장 건물의 경관과 거리특화거리 등 ○ 선진복지 패러다임 도입 및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종합관리,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 특화산업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생명농업패러다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순환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지역식품 클러스터 형성 등 ○ 어메니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토지이용계획 수립 경관조례 제정 금강탐방관광도로 건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개발, 복지서비스 구축, 어메니티 활성화 전략 수용
제2차 농림어업 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방안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 누구나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 부문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강화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을 창조 -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신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을 만든다 -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조 ○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 발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대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지방계획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비전목표, 부문 계획 구성 내용 수용 ○ 지역의 주도성 강화 전략 수용

관련계획	주요계획내용	비 고
2020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 (2009~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미래를 짊어질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인력육성, 외국 및 이주여성농업인 체계적 지원 교육 및 시스템구축 ○ 인력절감형 영농기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농업용수 효율적 관리 ○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BT활용 미래농업육성, 로열티 절감위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 해외 농업개발 연구소와 시험장의 R&D 강화, ○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가공기술개발, 농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 농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자 중심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체계 개선,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쌀가공 수출확대, 명품브랜드 개발육성 ○ 산업화 역군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 구축, 정주기능 강화, 면소재지 중심 농촌인프라구축,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의 어메티니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마을 육성, 휴양시설 확충, 관광산업 발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 탄소흡수원 육성, 녹색경관조성, 에너지 사용개선 ○ 품목별 육성(농림축수산물), 앞서 가는 스마트 농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력 육성,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보장, 도농교류활성화 등의 전략 수용 ○ 동 계획과 제2차 충청남도 삶의 질 향상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모색

4.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4.1. SWOT 분석

□ 장점(Strength)

- 수도권, 대전대도시권, 행복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대규모 시장이 인접하여 도농교류, 지역 농수산물 유통, 농어촌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에 유리
-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축수산업 경쟁력, 농촌성(rurality), 어메니티자원 보유
- 다양한 농특산물, 다양한 관광자원, 특색있는 농어촌지역축제 등 다양한 특화자원 보유로 농촌경제활동 다각화에 유리

□ 약점(Weakness)

-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사회 위축
- 소규모 농촌중심지들의 농어촌주민에 대한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 미약
- 충남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유입인구와 기존 농촌공동체간 갈등 증가

□ 기회(Opportunity)

- 대도시권 인접 및 고속도로·철도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농어촌관광, 도농교류 활성화 기대
- 경기침체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 귀농·귀촌 수요 증가 예상

□ 위협(Threat)

- 서북부지역, 대도시근교, 세종시 등 신개발지역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 농지잠식 확대, 농어촌 환경 훼손 우려
- DDA 및 각 국가와의 FTA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기존 농축수산업의 위축

4.2. 계획과제

- 공공의료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건·복지 증진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 농어촌 특성을 살린 우수 학교 및 교육프로그램 확충, 교육기회 확대
 - 농어촌의 공교육수준을 향상하고, 교육부담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정주계층별 특성화 개발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
 - 농촌중심지 계층별, 농촌마을 유형별 수요에 적합한 정주여건 조성
- 1·2·3차 산업복합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다각화
 - 농·수·축산업과 2·3차 산업이 융합된 복합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경관보전·가치 활용,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경관 개선
 - 농림수산업의 저탄소 녹색기술 적용, 농어촌 녹색공간 조성, 녹색 식생활 문화 형성
 - 농어촌지역의 감성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 문화·여가 시설·컨텐츠 확대, 접근성 제고 등 문화·여가 여건 향상
 -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창출 및 활성화
- 지역역량 강화, 농어촌 지역발전 거버넌스 강화 등 지역발전역량 강화
 -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리더 육성,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